

시오노하 온천과 야마바토유

시오노하 온천은 오사코 댐 근처의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. 땅에서 분당 약 500 리터의 온천수가 솟아 나옵니다. 온천수는 처음에는 투명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약간 탁한 황색으로 변합니다. 이는 높은 철분 농도 때문으로, 온천 주변의 바위도 녹슨 듯한 황색으로 변하게 합니다. 이 지역의 온천은 아주 오래 전인 헤이안 시대(794~1185)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,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에도 시대(1603~1867) 것만 남아 있습니다.

오사코 댐은 1973 년에 완공되었으며, 이로 인해 온천의 원천이 댐 호수 아래로 잠기게 되었습니다. 지역에서 대대로 임업을 해온 나카무라 가문은 온천수 입구를 다시 열기로 결심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150m 를 파 내려갔습니다. 1977 년, 나카무라 가문은 온천 여관인 야마바토유를 열었습니다.

야마바토유의 온천수는 100% 원천에서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39 도의 천연 온천입니다. 탕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, 노천탕은 거대한 느티나무 줄기를 잘라 속을 파낸 것으로, 실내탕은 삼나무 목재를 울타리처럼 배열하여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온천수는 매년 1~2cm 의 미네랄을 침전시키며, 이로 인해 나무 표면이 침전물로 완전히 뒤덮여 거친 도자기와 유사해집니다.

시오노하 온천은 탄산수소염천입니다. 여름이면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골짜기와 댐에 걸린 우아한 아치형 다리를 감상하며 호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낮 동안 여관 2층의 식당은 입욕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위한 레스토랑으로 운영됩니다. 제공되는 메뉴는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, 갓 채집한 채소(산나물), 곰, 오리, 참새 등 야생 동물 요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.